

“마스크 벗고 뛰니 시원해요” “불안해서 계속 써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첫 날 풍경

50인 이상 경기장·야외 결혼식 등 의무화 532일 만에 해제 “아직 어색” 시민 10명 중 6명 ‘착용’... 축제 인원 제한 의견도

“선생님, 오늘부터 밖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대요”

26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어린이집 놀이터에는 6-7세 아이들과 선생님 50여명이 마스크를 벗고 놀고 있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놀이터 곳곳을 뛰어 다녔다. 비눗방울을 날리며 쫓아다니기도 하고, 놀이기구 사이사이를 드나들며 슬래집기를 하기도 했다. 잡자리채를 들고 풀밭의 메뚜기를 잡거나 커다란 줄로 단체 줄넘기를 하며 내기를 하기도 했다. 이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마스크 없는 얼굴이 해맑아 보였다.

26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구 경기장, 야외 결혼식, 집회 등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지난해 4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532일 만이다.

이날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선생님에게 다가와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류현강(46) 전남대학교어린이집 원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을 때는 체육 활동이 쉽지 않았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싶어하는데 항상 마스크가 장애물이었다. 마스크가 아이 얼굴에 슬리기도 하고, 뛰다가 호흡근이 온 아이도 있었다”며 “아이들도 마스크를 벗고 마음놓고 뛰어다니는 날

을 기대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 아이는 오늘부터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공기를 마실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놀이시간이 끝나고 어린이집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자 어린이들은 당연한 듯이 마스크를 찾아 썼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됐지만, 시민들은 대체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아직은 어색하다는 반응이었다.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한 시간 가량 시민들을 만나보니 10명 중 6명 정도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충장로에서 조깅을 하던 한 시민은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몰려있자 황급히 마스크를 찾아 쓰기도 했다.

회사 거래처 사람과 미팅을 하기 위해 동명동을 찾은 인천교(29)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거래처 직원에게 예의없어 보이거나, 배려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다. 마스크는 이제 에티켓이 됐다”며 코까지 덮은 마스크를 매만졌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야외마당인 ‘하늘정원’에 놀러온 오정임(여·25)씨는 돛자리를 깔고 앉아 마스크를 쓴 채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다. 커피를 마실 때만 잠깐씩 마스크를 내렸다. 오씨는 “오전에 뉴스를 통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광주시 남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6일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고 있다.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 경기장 등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도 아직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어색하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

는 시민도 있었다.

조하은(여·23)씨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되는데 그래도 인원제한은 있어야 할 것 같다”라며 “마스크를 벗은 채 지나가는 것은 상관 없지만

축제처럼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서울시 ‘화정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추가 청문 예비 입주자 “가해자 편의 지나치게 봐주고 있다”

서울시가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을 추가 청문하기로 했다. 이에 예비입주자들은 “서울시가 붕괴 사고 가해자인 현대산업개발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화정 아이파크 사고 원인과 처분 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현대산업개발을 추가 청문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의 세 차례 추가 소명 요청과 ‘추가 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 주재자 의견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 현대산업개발에 사고 책임을 물으며 ‘등록말소’ 또는 ‘영양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리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 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양정지 4개월 처분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당초 9월 이내에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사고 원인 분석, 책임 여부 규명 등을 거쳤다. 지난 8월 22일에는 현대산업개발의 입장을 듣겠다며 청문을 진행했으며, 현대산업개발 측은 추가 소명을 세 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가 청문이 열리게 되면서 처분이 내려지는 시기도 늦춰지게 됐다.

이에 예비입주자들은 “가해자들에게만 계속해서 발언권을 주는 서울시 행태에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는 입장이다.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협의회 대표는 “서울시는 지난 22일 예비입주자들이 왜 서울까지 올라가 집회를 열고 시에 청원서를 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원망스럽다”며 “1차 청문회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입주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참관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현대산업개발은 예비입주자들과 충분히 상의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입주자연대배상금을 낮추려는 꼼수 지원책을 내놓고 예비입주자들과 접촉하려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 입장만 대변하고 기회를 줄 게 아니라, 2차 청문회 때 예비입주자도 참관할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공중보건의 감소 전망, 의전원 도입해야”

김원이 민주당 의원 국감 자료

의료취약지인 전남에 근무를 원하는 공중보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공중보건의로 편입된 의료인이 지난 2008년 1962명에서 올해 1048명

으로 914명(46.6%)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한의를 제외한 의사 수는 동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767명(60%) 줄었다.

공중보건의의 의사가 군복무 대신 사·군 보건소 등에서 36개월간 근무하는 병역제도가

전국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의 의사 1732명, 치과 의사 637명, 한의사 1020명으로 총 3389명이다. 지난 2018년 2002명에 비해 270명

(13.5%) 줄은 것이다.

특히 의료취약지인 전남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지난 2018년 643명에서 올해 612명까지 감소했다. 반면 광주지역에서는 2018년 1명에서 올해 3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전남 등 의료취약지원의 보건의 감소 원인으로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제도 변화를 꼽았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불균형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내년부터 광주 초등 1학년 학급 정원 20명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급 정원을 20명 이하로 편성한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2027학년도 중기 학생배치계획을 확정했다.

중기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5년 동안 학생 수와 학급 수 등을 예측해 각종 교육정책 자료로 활용된다.

광주 초등학교의 경우 2023학년도 1학년부부터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이하로 조정된다. 현재 광

주 초교 학급 기준 정원은 25명이다.

초교 학급 정원 20명 이하 유지는 이점선 교육감의 공약 가운데 하나다.

중학교는 현재 기준(학급당 26명)을 유지하다가 2024학년도부터 25명으로 배치한다.

고등학교(일반고)는 2023학년도 신입생 증가로 27.5명, 2024학년도 27명, 2025학년도부터 1명이 감소한 26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연도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점차 줄이되 일시적인 학생 수 증가로 교실이 부족할 때

는, 학급당 학생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교육청은 학급정원 조정으로 교사증원, 교사 신축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수가 꾸준히 줄고 있어서다.

2022년 16만9208명이던 광주 초·중·고 학생 수는 2027년 14.1%가 감소한 14만5282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박준수 시교육청 행정예산과장은 “공공주택 개발지역은 학교 신·증설을 지속 추진하고, 과밀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